

전당에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기풍이 더욱 뜨겁게 차넘치게 하자

사랑과 정이 있어야 끝까지 책임질수 있다

강동지구단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사람들을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어야 할 사명을 지닌 당원군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나서는것이 있다. 사랑과 정으로 사업하는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위력한 열쇠가 바로 사랑과 믿음, 뜨거운 진정성이 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 서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동지구단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사랑과 정이야말로 당사업, 사랑과 정이의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잘 보여준다.

특정관망의 한 소대장의 가슴 속에는 잊을수 없는 추억이 간직되어있다.

그의 남다른 인생행로에 깃든 가치자서의 사연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책임진 당원군들의 사랑감을 같이 소개해준다.

그 소대장은 몇몇 본의이러게 일어난 파고를 빙해져 되었다. 처벌을 받고 끌려온듯 일하게 된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서질들 못했다. 그를 두고 제일 가슴이파란것은 당원회일군들이었다. 변학기업소당위원회의에서는 량광 당원군에게 그를 잘 이끌어줄데 대한 분공을 주고 그의 사업과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당원회일군들이 자주 그를 만나 교양도 하고 집에 찾아가 고구도 해주었다. 그의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신통 결을 주지 않는 그를 두고 도리머리를 짓는 일군들에게 당원회일군은 절절히 말하였다.

어머니는 병든 자식일수록 더 마음을 쓰며 정성을 강그려 마저 끝까지 일으켜세우다. 우리의 사랑과 정이 아직 친어머니만큼 뜨겁지 못했다고 본다. ...

그때부터 당원회에서는 그에 대한 지도에 보다 많은 품을 들이였다. 진실하고 성실하며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장점을 해하여 일감도 맡겨주었고 그의 자그마한 소행도 크게 내세워주었다. 그는 처음 일에서 성수를 내게 되었고 혁신자로 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소대장으로까지 임명되었다. 사랑들은 그의 인생에서 전환이 일어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당원회일군들은 그에 만족하지 않았다. 일군들이 남모르게 기울인 심혈은 드디어

결실을 안아왔다. 지난해 4월 그는 조선로동당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뒤떨어졌던 한 전사를 끝까지 이끌어주는 과정에 당원회일군들이 깊이 절감한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지닐 때에만 종업원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질수 있다는것이였다.

차광수정년돌격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교훈적이다.

한때 돌격대에는 사람들의 말밖에 오르던 청년들이 있었다. 당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청년들은 어엿한 혁신자로 자라나게 되었다.

제2차 전국청년비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을 선발할 때였다. 본의가 분분했다. 일부 당원군들이 몇몇 청년들의 지난날의 생활을 거들면서 머리를 기웃거렸던것이다.

그러나 책임비서 리보호동무의 립장을 확고했다. 이런 때의 면한다면 그들에 대한 당조직의 믿음이 빈말로 된다. 그들이 잘 못 살았어 과거때문에 한생 그들을 안고 살게 해서는 안된다 는 생각으로 그는 청년들을 전적으로 보증을 섰다. 하여 차광수정년돌격대에서 선발된 여러명의 청년들이 대회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사랑과 믿음의 힘은 대단했

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촬영까지 하고 돌아온 후 청년들의 열의는 백배해졌다. 자기들을 차별없이 믿어주고 이끌어주어 경애하는 원수님앞에 내세워준 당조직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할 그들은 지금 새 탄발을 마련하기 위한 돌격전의 선두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사람들의 운명뿐 아니라 생활까지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하는것이 당조직이다.

지난해 3월 당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부모를 잃고 함흥에서 생활하는 로동자가 한 처녀와 일정을 같이하고 또 약속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부모를 대신하여 결혼을 보란듯이 잘해주자고 일군들이 저마다 이야기하였다. 하여 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세워졌다. 이때 당직일군이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사자가 함흥생인것만큼 새 집을 마련해주고 곧 살림을 펴수 있게 생각까지 그려내어 주어야 하는것이였다.

그 제기는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어째서 자기들의 생각은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는가를 돌이켜볼수록 가책되는바가 되었다. 철저 친부로서의 사랑과 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인민의 웃음꽃을 피우는 자양분

송원군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순철동무는 서울로 집을 나섰다. 이른 새벽마다 읍지구를 돌아보는것이 어쩔수 없는 첫 일과였던것이다. 가로동을 새로 설치할 자리들도 돌아보고 군문화회관건설정형도 료해한 그의 발걸음은 군역관 개건공사장에서 멈춰섰다. 공사는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고있었다.

수도물은 잘 나오는가. 전기인양화된 오실들의 온도는 얼마인가. ...

손님들에게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관심을 더욱 훌륭히 개건할 목표를 내세운 군당일군은 뜨거웠다.

명문고개에 있는 송원군은 외진 산골짜기이다. 오가는 길은 돌도 얼마 되지 않아 언덕부터 있었다는 자그마한 리인속까지 사람들의 관심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도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질줄 누가 알았으랴. 전후 송원군을 찾으신 것이어서는 안되리만큼 잘 지어놓고 오가는 손님들의 숙식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한 은정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렇게 일떠선 리면이었다.

리관을 더욱 훌륭히 개건할 목표를 내세운 군당일군은 뜨거웠다.

명문고개에 있는 송원군은 외진 산골짜기이다. 오가는 길은 돌도 얼마 되지 않아 언덕부터 있었다는 자그마한 리인속까지 사람들의 관심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도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질줄 누가 알았으랴. 전후 송원군을 찾으신 것이어서는 안되리만큼 잘 지어놓고 오가는 손님들의 숙식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한 은정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렇게 일떠선 리면이었다.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리송일동무의 안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적었다. 몇 해전 난치성질병에 걸려 일할수 없게 된 남편의 병을 완치시켜 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 당원군인가. 환자들 송용처에 매우 병든 사람들도 보내주었다. 매일 일일이 의료일군들과 치료대책을 토의하고 귀한 약재를 구해준 사람들도 당원군들이었다.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터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던 모습이며 반일애국렬사유자녀

들은 맑은 건어울리고 떨쳐나섰다. 설계로부터 로복과 자재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걷은 길이 얼마인지 모른다.

몇달전부터 훌륭하게 번모된 리관이 손님들을 반겨맞고있다. 집을 멀리 떠나와도 자기들을 기다리는 따뜻한 보금자리에 들어설때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해한다.

손님들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꽃,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가는 송원군 일군들의 헌신의 맑이 자양분이 되어 피워내려 아름다운 꽃이다.

게 총정의 데, 애국의 대를 꽃같이 이어가도록 이끌어주던 목소리를 잊을수 없었다.

어머니는 멀리에 있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을 기울이는 법이다.

한데치고 거나 공장과 가정을 떠나 생활하는 평범한 로동자를 위해 발길도 많이 걷는 당원군들의 뜨거운 정은 결코 나더 혁신자로 자랑높은 남편의 모습을 생각할수 있었다.

일군들을 바라며 리송일동무의 안내는 감동속에 눈시울을 적시였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새 리면에 제군나 리면에 제군나

밤은 깊어가고 단신익공작 초급당비서 리광식동무의 사무실에서 불이 꺼졌다. 출강중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료해 하던 그의 눈길은 자재와 로동자 리송일동무의 이름에서 멈춰졌다.

(외지생활에 병이 도치지 않았을까. 그의 안내도 건강상태가 시련이 없었는지...)

격정은 꼬리를 물고 가지를 쳤다.

다음날 저녁이었다. 직방일군과 함께 단신익 항공3동에서 살고있는 리송일동무의 가정을 찾은 초급당비서는 안내의 건강상태

대천군 료상리당위원회에서

다. 몇개의 국한된 직종에서 일하는 대상을 이미 혁신자명단이 작성되었던것이다.

(다른 직종에도 혁신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들의 이름은 이명단에 없는가. ...)

이것은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며 혁신자들을 선출하지 못하 고 사무실에서 올라온 자료나 종합하는 수위를 방방으로 명단을 작성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리당일군은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나.

먼저 일군들을 아래에 내려보

송고한 인민관을 제정하지 못한데로부터 나타난 편향이다.

리당비서의 맑은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지난날의 사업을 심하게 돌이켜보게 하였다.

그후 혁신자들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었다. 당원회와 편향된 모든 직종에서 혁신자들이 빠짐없이 선출되었다. 일군들은 선출된 혁신자들을 놓고 토의를 거듭하던가 한명한명 심중하게 명단에 적어넣었다. 그리하여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대상을 빠짐없이 명단에 오르게 되었으며 정치적 경감과 함께 높은 물질적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 대중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과 립장도 마르세 되었으며 이에 대한 농업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농업근로자들은 누가 보진말건, 아이추진발전 나라의 농업정책을 받들어 성실히 일한다면 누가 누구는 혁신자의 영예를 지닐수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정치사업이 되어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분출시켰으며 영농전투에서의 훌륭한 성과로 이어졌다.

다시 작성된 혁신자명단! 우리는 크지 않은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이곳 리당일군들의 인민에 대한 복무기풍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깊이 느끼게 된다.

본사기자 리 동 규 역

다섯 번 갱신된 전투목표

래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전투목표를 다섯 번 갱신! 이것은 래천군당위원회가 지난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얼마나 심도있게 벌여왔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높은 인민성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초 군당위원회 전회의의 확대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면서 군안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군소재지를 잘 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지방산업공장을 개건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이 반영된 전투목표는 실로 방대하였다.

하지만 군안의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드라는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그 목표들을 당결정으로 채택하였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내세운 첫 전투목표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치밀한 조직사업과 혁신적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켰다. 전투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에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그 열정은 언제나 일군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전투가 시작된다. 목표가 되지 않아 련도업적단위인 목각형동동장 22작업반의 생산선진분들과 32세대에 달하는 16동의 살림집건설이 훌륭히 완공된것을 비롯하여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바로 그러한 때 군당책임일군은 읍지구에 가로동을 설치하고 공공건물들에 불장식까지 덧붙이게 하자는 인상을 내놓았다. 전투목표에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였다.

일부 일군들은 신통 옹대나서지 못했다. 방금 큰 일감을 제끼고 허리를 졸 꺾었다는 또다시 일관을 버려놓지 않고 그림판도 하였다. 로복과 자금, 자재도 긴장한데 여유가 좋 생긴 다음에 가로동을 설치하였는지 어떤가 고 의문을 제기하는 일군도 있었다.

하지만 군당책임일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인민을 위한 일에선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성과에 만족했기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쉬임없이, 발이 닳도록 뛰는 일군이 바로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일군이다. 우리가 고생하는것만큼 인민의 행복이 커진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자.

군당책임일군의 절절한 호소는 잠시나마 랑개를 늦추었던 일군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되어 읍지구에 가로동을 설치하고 공공건물들에 대한

불장식을 완성하는 문제가 또다시 전투목표에 반영되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이 갱신한 전투목표였다.

읍지구에 가로동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는 빠른 기간에 진척되었다. 뿐만아니라 읍지구 살림집들의 지붕을 보수하고 길을 넓게 새로 포장하며 목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성과는 더욱 확대되었다. 군소재지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 주변을 완전히 일인관을 버려놓지 않고 그림판도 하였다. 또한 학생소년회관과 미레원, 종합식당, 은덕원, 로라스케트장, 청년공원을 비롯 한 군안의 공공건물들과 상업봉사망들, 지방산업공장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였다.

군의 면모가 달라질수록 전투목표는 계속 갱신되었다.

영농사업과 교육, 보건 등 군안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전투목표에 새롭게 반영되었으며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전투목표는 다섯번이나 갱신되었다.

그 과정은 곧 군안의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없으며 끊임없이 목표를 제기하고 발이 닳도록 땀 빼 인민의

행복이 커지고 로동당만세 소리가 더 높이 울릴수 있다는 투철한 복무부담감을 뼈속깊이 새겨준 과정이기도 하였다.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 군당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목표를 더욱 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당 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려는 이 뜻만큼의 헌신적인 헌신적인 투쟁기풍이 언양을 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세대 제1선진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는 새해 농사차비전투로 새창을 뜬 염주군 내중협동농장 청년분조소이다.

지금 이곳 청년분조원들은 첫 수조산시험에서 환경성공하고 선진호의 국책을 만천하에 파시한 존엄높은 공화국의 청년전위라는 긍지를 안고 거름시내 기전투에 한사칼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붉은기가 새창에 휘날리는 포전들에 혁신의 기상이 나뉘고있다.

한겨울의 땀 뚫추위속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는 청년분조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올해에도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려는 불같은 열의가 가득 들어있다.

《백 창민, 한은실, 안금성동무들! 매일 거름실어내기 150봉이상 넘겨 수령! 이라! 온 헌정속보안의 글밭들이 청년분조원들을 새로 세운 위훈으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결정차에 질풍을 거름을 가득 트락트르들이 용을 쓰며 포전으로 들어서자 청년분조장 리인순동무가 손사발을 하고 청년들을 소리로 부른다.

《몇당해요?》 트락트르운수가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열당합니다.》 골 거름차작업이 시작된다.

《분조장 동무, 저 달구지들에 실다. 보름동안에 계획대로 수백 t의 거름을 포전들에 담벼 실어내야 합니다. 그것의 양에 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앞에 걸 만한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마더머에 신심이 넘쳐나는 청년분조장의 목소리가 청년분조원들을 오투루고뜨는 풍요한 가을로 부르짖었다.

특파기자 송 창 문

청년분조원들이 달구지마다 거름을 가득 실고 포전으로 들어서고있다.

관리위원장 백연동무가 청년분조장 리인순동무에게 말을 건넨다.

《분조장 동무, 저 달구지들에 실다. 보름동안에 계획대로 수백 t의 거름을 포전들에 담벼 실어내야 합니다. 그것의 양에 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앞에 걸 만한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마더머에 신심이 넘쳐나는 청년분조장의 목소리가 청년분조원들을 오투루고뜨는 풍요한 가을로 부르짖었다.

특파기자 송 창 문

일터에 넘치는 혁명적량만

순천구두공작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매들을 높이 부르며 언제나 혁명적량만에 넘쳐 생활하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노매보급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동원, 노매보급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치고있다.

이와 함께 《영원히 한걸음 가리라》, 《조선의 모습》,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비롯한 혁명적인 노매들을 헌장방식으로 계속 보내내어 일터마다에 혁명적신념과 량만이 차 넘치게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 선진일군들을 적극 내세워 노매에 담겨진 사상주제적내용을 종업원들에게 상세해설하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연회와 종업원들이 모이는 계기마다 새로 나온 노매보급사업과 함께 직장별, 작업반별노매경연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일터마다에 힘찬 노매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있다.

일터에서 시의 공장, 기업소 청년동맹일군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공장청년동맹원들의 예술소용공연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로봉동원원 장 정 석

우량품종과 과학농법도입에서 나서는 문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사수에서 내세우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신사에서 농업부문에서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지금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신년사에서 제시된대로 자기 고창의 지대적특성에 맞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는 이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우량품종과 과학농법도입에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얼마전 농업성 국장 주철기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먼저 우량품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고싶다.

국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신 시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업부문에서 종자문제를 토론하 시켜주고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올해신년사에서 농업부문에서 우량품종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량품종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품질이 좋은 품종 다시말하여 해마다 수확량이 높고 안전히 수확을 내면서도 맛이 좋고 영양가치가 높은 품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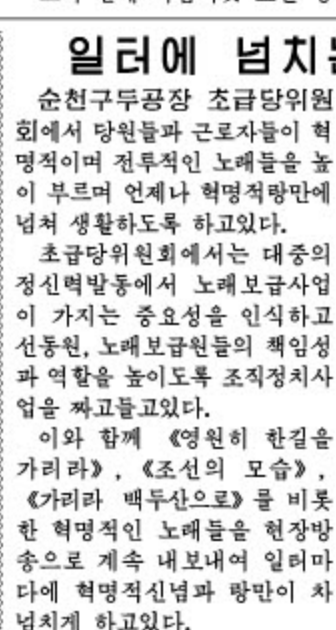
수리화확면에서는 자연로림 식물질, 방음식관수방법을 비롯 한 실천에서 구 우형질에 각종 관계제도의 도입, 재배조건에서는 논벼소식재배, 분경재배, 피복재배, 무비부스갑자종재배, 연용재배, 방제재배, 영양장성 등이다. 우량품종은 광적지표뿐만 아니라 질적지표를 높은 수준에서 가지고있어 생산량이 많은 것과 함께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은 종자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우량품종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단순히 기술실무적인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더 높여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는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기자: 지금 농업부문뿐만아니라 련관단위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학농법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의미에 어떤 중요 구제적으로 알고있으면 한다.

국장: 과학농법이라고 할 때 모든 영농사업에서 현대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여 과학적 리치에 맞게 농사짓는 방법을 말한다.

현대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이는다는것은 기계화속면에서 보면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농기계를 늘, 화학비료에서는 살초, 살충농약이 강하면서도 인체에 해가 없는 무독성살초제, 살충제들과 생물비료, 생물농약, 각종 성장속진제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근로자들이 일터에 넘치는 혁명적량만을 보여주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이 일터에 넘치는 혁명적량만을 보여주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이 일터에 넘치는 혁명적량만을 보여주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이 일터에 넘치는 혁명적량만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계급의 영예를 지켜 한생을 빛내인 강선당의 천리마기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전망현대화연구소 실장이었던 김일성장제과인 최인화동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련달신 당을 따르고 옹호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이 세상에 근로하는 계급이 생겨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천년세월 그 어느 계급도 아이같이 못한 최상위대의 영광을 안고 사는 로동계급이 있다.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나라의 밑바탕을 지라나 제국, 조국과 혁명이 비라는것이라면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는 기적의 창조자들에게 우리 당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값높은 영예를 안겨주었다.

지난날 시대와 역사를 밀러나 버림받던 로동자들을 혁명의 핵심부대로 내세워 주시고 조국의 역센 기둥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선로동계급의 기수, 선구자의 영예를 떨쳐왔던가. 진용원, 김학실, 김필환, 김우봉...
 재가루남리는 폐허에 사회주의를 일떠 세우던 그날로부터 수조만의 장쾌한 폭음이 천지를 진감하는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아버지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이 어려웠던 위대한 신성한 계급의 영예를 지켜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순간까지의 앞장에서 내달린 참된 인간정형들속에 우리 나라 첫 천리마기수들중의 한사람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전망현대화연구소 실장이었던 김일성장제과인 최인화동무도 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향하여 진격의 속도를 높여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에 충실했던 오랜 로동계급의 한생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있다.

전기로는 나의 심장

주제 48(1959)년 3월 우리 나라에서 첫 천리마작업반이 태어났다.
 온 나라 인민이 첫 천리마선구자들을 붙잡는 찬란과 선명속에 비라보았다.
 천리마위장을 가슴에 반짝이며 시대의 상상속에 오른 강선의 진용원작업반원들, 바로 그속에 최인화동무도 있었다.
 몸만 같았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강선 제강소 1강철직장(당시) 용해공으로 배치된 단련전반원이어도 전기료로라도 다가서기를 주저하였던 최인화동무였다.
 황금빛 쇠물이 출렁이고 무수한 불꽃이 출렁이는 장엄한 풍경, 눈처럼 희디흰 방울방울을 입고 하나와 같은 불통으로 마치 춤을 추듯이 생식회를 피는 용해공들, 이것이 최상급의 20살 애젊은 청년의 상상속에 비껴든 전기료의 모습이었다.
 만간전 상상에 비해서 현실은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로 그를 놀베였다.
 전기로서 울러나오는 고압전류흐르는 소리는 참으로 요란하였다. 쇠물은 눈부신 백광을 쬐며 무섭게 사뭇조여 용해공을 흘날리는 불보라는 쇠물남에서 무리로 뛰어나오는 쇠물방울들이었다.
 때없이 콩트림하며 세한 고열을 내뿜는 전기로, 보통 7~8kg의 원료가 담긴 부삽을 들고 화점크기만 한 장입구를 향하여 팔러나가기 위해 땀뻘뻘한, 살시에 온몸이 양으로 희락하니 젖어들었다. 더위가 옷몸에서 솟아나는 땀이 고스란히 아레도리를 적서 놓아 바지가 허벅지다리에 붙어들어갈 때면 피부가 쓰러졌다. 일을 끝내면 목덜미는 손처럼 작업장바닥에 주저앉아 일어설힘을 못했다.

사투쳐왔던것이다.
 《반장동지, 제 다시는 전기료앞을 뜨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최인화동무는 작업반원들과 함께 늘 불앞에서 살았다.
 작업을 마치면 신발바닥이 달도록 재장 소쿠리를 뛰어다니며 원로들을 확보하고 기술학습을 했으며 다른 작업반의 로보수도 도와주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있으면 휴게실 긴장상태를 알아 달랠때도 눈을 붙이고는 또다시 교대작업을 나갔다.
 이 시절의 말뚝잡머티이 몸에 배어 먼 후날 갖 시집은 머느리가 앉은자리에서 잠을 자는 시아버지를 보고 껌짝 놀란적도 있었다.
 최인화동무는 이렇게 용해공의 첫걸음을 떼었고 온 나라가 손잡아 기다리던 첫 천리마기수의 한사람, 진짜천리마로동계급이 되었다.

하지만 온 8대에 달하는 시형용원로들을 30리밖에서, 그것도 불과 몇사람이 동침으로 날라다나간 것이 간단치 않았다.
 지친 기색이 완연한 연구사들에게 휴식구멍을 내린 최인화동무는 집에서 안해가 준비해준 납세방을 끌고로 누우어주었다.
 연구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고개위로 멀어지는 너인들을 내려다 보던 최인화동무가 누구에게라고 말하오던.
 《글래, 울리막길보다야 내려막길이 한결 쉽겠지. 하지만 천리마고베를 틀어잡은 뒤가 땅으로 끈부착하면 무슨 꼴이 되겠소.》
 어린가 모르게 동주가 다분한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연구사가 격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직장장동지는 나이도 많고 몸도 여는 사람들같이 앉은데 합치 않습니까.》
 그 말에 최인화동무의 눈빛이 추연해졌다.
 《나야 우리 수령님 덕에 죽음의 고개를 넘어선 사람이 아닌가.》
 순간 온 강선당이 잊지 못하는 뜨거운 추억이 최인화동무와 연구사들의 마음속에 울려들었다.

그러하여 강선당이 생겨 처음 보는 뜻깊은 사회모임이 이듯 로동계급의 눈물속에 열리고있고 진용원영웅을 비롯한 천리마시대 기수들과 오랜 로동자들에게 대한 집중검진과 치료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한두 쇠물을 끌어온 평범한 로동자들을 자신과 함께 일한 일꾼들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시며 육체의 정을 부여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속에 중병으로 생사기로서 예매던 최인화동무는 기적적으로 소생할수 있었던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지켜주시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기료를 죽인다는건 말도 안돼.》
 비상한 각오를 안고 울리는 최인화동무의 이야기는 연구사들에게 커다란 힘과 송찬한 자각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전부 동침으로 날라왔고 피하는 노력끝에 샤프트며틀을 대신할수 있는 세형의 벽물을 만들어낸데로 긴장한 내화물문제를 푸는데 기여하였으며 규소철생산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때 최인화동무의 나이는 60살을 눈앞에 둔 때였다. 흔히 쇠물 녹이는 사람들은 은 인고개를 넘으면 맥이 진한다고 한다.

그런 나이에 무거운 돌베낭을 지고 활막고개를 앞장서서 오르던 최인화동무의 가슴속에는 전기료가 죽으면 내 심장이 얼어붙고 조국의 슬겅이 멎는다는 사생결단의 의지가 팍 차있었다.
 그런 의지의 힘으로 최인화동무는 강철공업의 정수인 초고전력기기를 로동자제 힘과 기술로 일떠세울 때에도 전망현대화연구소 실장으로서 진지한 탐구와 사색을 기울이며 우리 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갔다.
 로의 위치와 크기를 기업소의 조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며 우리 나라의 전력조건에 맞는 변압기를 설계하는 문제, 수입전국이 아니라 우리의 전기를 리용하며 복잡한 생산환경속에서도 내화물의 침식과 전벽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주제 97(2008)년 12월 24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이 우리 식의 초고전력기기를 자력으로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최인화동무를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때로부터 두해가 지난 주제 99(2010)년 4월 최인화동무는 영예의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 아버지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김일성상금매달을 받아안은 순간 최인화동무는 울어넘치는 격정과 더불어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51년전 그날 자신과 함께 천리마위장을 수여받던 어제날의 작업반원들이 곁에 서있었던것 같았다.
 용양강이밤에 된장을 먹으면서도 전기로 앞을 떠나지 않았으며 고열이 방울방울이 타드는 로안에도 주저없이 뛰어들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거머지 바친 수많은 강철전사들의 모습이 비쳐들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강철을 위하여, 전기료를 위하여 삶의 모든것을 강그리 바쳐왔던 것이다.
 전기로는 바로 그들의 심장이었다.
 쉬임없이 쇠물을 끌어 어머니조국과 부흥의 슬겅을 더해주는 전기로처럼 마지막 피 한방울을 다할 때까지 어머니조국과 운명의 슬겅을 같이한 애국자들, 그들이 보다 바친 충정, 보다 그가 한생토록 조국의 운명처럼 간직하고 지켜온 강선의 전기로였다.

눈을 적시곤 한다.
 한생 전기로로 심장에 안고 살아온 아버지, 너무나도 일찍이 모르는 아버지여서 70년 생일상도 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이 주관해서야 받지 않았던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배이삭처럼 나이가 들수록, 해놓은 일이 많을수록 더욱 고지식해지고 더욱 한강해지며 더욱 투철해지는것이 최인화동무의 성격이고 기질이었다.
 8년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선 땅을 다니가신 때로부터 얼마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수록한 기록영화가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었다.
 기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이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 기록영화를 시청하고난 뒤 강태운동무를 비롯한 전망현대화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최인화동무에게 말했다.
 실장동무도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있었는데 어쨌서 기념사진을 찍는 화면에는 얼마 비치지 않았는가, 장군님 가까이에서 조급한 더 다가섰더라면 역사에 길이 남을 화폭에 얼굴을 남겼는데 참 아쉽게 되었다고.
 그때 최인화동무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품에도 그러던 위대한 장군님결로 한발자국이라도 더 다가가고싶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수척해진 장군님을 뵈는 순간 싹쓸이 그이결로 다가설수 없었다. 강철생산도 추켜세우지 못하고 강철공업의 현대화도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데 무슨 낫으로 장군님앞에 나선단 말인가. 나처럼 구실 못하는 전사들이 있어 장군님도 고달가달이 갈수록 커만 간다고 생각하니 얼굴조차 들기 힘들었다.
 마디마디에 눈물이 푼는 그의 대답을 들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장에 몰아보았다.
 하나의 자그마한 성과들, 그나마도 뒤늦게야 내놓고도 당에 큰 기쁨을 드리게 되었다고 너무나도 험사리 자랑했던적은 없었던가. 만약 자신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섰더라면 한결같은결음에 그토록 깨끗하고 순결한 향수의 리를 써왔처럼 문물수 있었는것인가.
 그후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제강공장에서 주제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내고 자신의 전공적성과는 거리가 먼 제철분야에 대한 피라는 연구를 심화시키 나가는 최인화동무의 모습은 당에 대한 충성도, 높은 실력도 모두 참된 향수에 뿌리를 두어야 진실하고 공정한 인생의 재부로 된다라는것을 가르쳐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하여 낫과 방이 따로없이 실장을 불태우던 최인화동무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뜻밖의 진단을 받았다. 이따금 심한 아픔이 올 때마다 수발을 받으면 나아졌지만 하고 안심했던 그것이 불치의 병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땅이 꺼져버리는것만 같았다. 병원에 갔다와서도 은종일 말이 없었던 그에게 자식들이 위로하려고 하고 최인화동무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 하려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나도 모자라는게 안타까워서 그러단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일러로 나간 최인화동무는 고온용기연구소기술을 도입한 신제원자기열로를 당장전 70년전에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를 초인간적인 의지로 벌려나갔다.
 살을 지미는 것 같은 아픔이 엄습할 때에도 신을 버린 내지 않았으며 식은땀으로 온몸을 적시면서도 날씨가 더워 그랜다고 말하곤 하였다.
 너무나도 강한 의지로 자신의 몸상태를 감수다니니 함께 일하는 연구사들도 그가 한두해정도면 얼마든지 견딜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최인화동무의 생은 마지막고베에 이르고있었다.
 최인화동무 70년을 눈앞에 둔 10월 8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새로 건설한 신제원자기열로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아침 최인화동무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아픔이 치밀어오르는 상태였던 시운전현장에 꼭 나가봐야 한다면서 가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으로는 한겅을도 견지 못한다고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자 최인화동무는 안락하운 어조로 말했다.
 《매일이 무슨 날인지 잊었니. 우리 수령님께서 강선을 처음으로 찾으신지 일흔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겹어서 못 가버린 거야서라도 가야 해.》
 모두가 껍뻑 놀랐다.
 생명의 마지막방울이 타들어가는 그 시각에조차 수령님 생각으로 심장을 꿰는 로동계급의 참된 진정성이 자식들의 마음을 통째로 울렸다.
 잠시후 당위원회 책임일꾼이 보내온 승용차가 도착하였고 그 차를 타고 최인화동무는 마지막승용군에 올랐다.
 정문을 통과한 승용차가 전망현대화연구소에 있는 청사앞에 이르렀을 때 최인화동무는 이제를 좀 걸고싶다면서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연구사 헌사동무와 함께 시운전 이 진행될 업무직장으로 향했다.
 57년전이라는 지나간 세월 걸고걸은 낯익은 구배길, 이제를 눈을 감고도 갈수 있는 그 길을 처음으로 걷는 최인화동무는



다시금 살피고 죽이는 강의를 지켜보는 최인화동무의 눈가에 최목빛이 이글거렸다. 강에서 뛰어오르는 눈부신 백광이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속에 비쳐들었던것이다.

성공의 희열이 안아온 눈물이었다.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을 미소속에 바라보던 최인화동무는 조용히 업무직장을 내갔다.
 얼마후 집으로 돌아온 최인화동무는 자리에 쓰러졌다. 지금껏 생명을 견지하고있던 마지막방울까지 다 써버린것이었다.
 흔히 말하는 의식속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름없는 영상이 안겨준 나라의 첫 천리마기수로 키워주시고 김일성장제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왔다.
 영원히 안겨살고있을 아버지의 품을 자기의 기억속에 뚜렷이 새겨안고 가려는 전기로와 함께 바쳐온 인생의 모든 영상이 움켜져있을 기념사진들을 하임없이 우려트던 최인화동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들인 최정동기동무가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굳게 쥐여져있었다.
 한생토록 온갖과 실험을 바쳐온 강철 덩어리마냥 역세게 틀어잡은 최인화동무의 주먹우에 쇠물처럼 뜨거운 아들의 눈물이 잠잠이 떨어지내었다.
 의식을 잃기 전에 최인화동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아버지께 대한 격정으로 눈물흘리는 자식들에게 아버지수령님의 첫 현지지도 기념일을 상기시켜주던 그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귀를 찢는 심장을 위해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에 있고 살아온 오랜 로동계급의 백옥같은 향수와 천리마시대가 불러준 충성과 의리의 진로를 감성함의 후손들이 70년, 70년 아니 영원토록 이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당부를 받아안을수 있는것이다.
 천수백℃의 고열속에서 쇠물은 더욱 순결해지고 눈부신 빛을 뿌린다.
 최인화동무의 심장속에 간직된 첫 천리마기수의 향수는 이렇듯 쇠물과 같은것이다.
 우리 당을 따르는 길에 시련이 겹쌓이고 고난이 막아설수록 더욱더 당의 손길을 꼭 부여잡고 걸어가는 향수, 인생의 길에 걸터서 우리는 귀를 찢는 심장을 위해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에 있고 살아온 오랜 로동계급의 백옥같은 향수와 천리마시대가 불러준 충성과 의리의 진로를 감성함의 후손들이 70년, 70년 아니 영원토록 이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당부를 받아안을수 있는것이다.

안되어줄 때였다.
 반교대작업을 위해 직장으로 출근했던 최인화동무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서 휴가를 신청한적이 있었다. 가는 길에 병원에 들러 목 약을 타가지고 가라는 진용원반장의 근심어린 당부를 얼굴을 숙이며 용해공을 나서는 최인화동무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다. 장입해야 할 원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전기료앞에서 분주히 오가는 작업반원들의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그는 함속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직장으로 출근하던 최인화동무는 제강소정문에서 붉은색 행렬과 마주쳤다. 파월이 든 손수레를 끌고 제강소로 들어서는 너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끌고 가는 수레채에 대동방 배달된것은 남편들에게 가져가는 발발이 분명했다. 아마도 강선이밤에 나물찬이나 된장 한술 같이 전부였을 그 밥막...
 순간 최인화동무는 꼬드코들 마른 강변 이발을 물에 말아먹으며 밤새 30이 월원님은 원로들을 로에 장입했을 작업반원들의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전기료의 흰증이 밀폐되어있어 모든 원로를 삼이나 손으로 먼져넣어야 했던것이다.

나남에 최인화동무는 강선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책임기사를 거쳐 강철생산은 책임진 강철직장 종합직장으로 성장하였으며 인생의 황혼기에도 전망현대화연구소 실장으로 정력에 넘쳐 일하였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을 용해공이라고 생각하였다.
 심장이 뛰어야 온몸에 피가 흐르듯이 전기료가 돌아야 온 나라에 부흥의 열매가 흐르는데 그의 소박한 인생철학은 전기로에 열려나와 진동식바닥다짐법, 새로운 원로에 의한 합금철생산방법을 비롯한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에 그대로 여려왔다.
 지금도 강선의 로동자들과 기술사들은 고난의 시기 전기료의 슬겅을 지켜 간담신고하던 최인화동무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어느해 여름이었다.
 삼복의 삼막히는 더위가 아지팡이를 퍼워올리던 어느날 강선당의 유명한 활막고개로 무거운 배낭을 지고 힘겹게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강철직장 종합직장으로 일하던 최인화동무와 공업시험연구소의 연구사들이었다. 땅에 쭈는 그들이 거친 숨을 힘껏이며 울리막길로 힘겹게 올라가는데 무거운 짐들을 손발구지에 싣고 고개를 넘어오던 두 너인이 허름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별새 한달재 저 고생을 하느구만.》
 《저 돌베낭에서 뭐가 나오겠나도 저리도 극성인지...》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내려막길로 총총히 사라지는 너인들을 돌아보면 한 연구사가 더는 참지 못했다는듯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정, 거기야 어디 맥이 풀려서...》
 그중에 다른 연구사들도 걸음을 멈추고 명랑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최인화동무와 연구사들이 무겁게 지고 가던것은 그 지방에 흔한 도자기원료였다.
 모든것이 어둠과 부촉했던 그때 기업소에는 고열토와 규사와 같이 먼곳에서 실이오던 국내산원료마저 고갈되기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못해 목스와 중유에 매여있는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우리 나라에 있는 원로마저 풀어놓지 못해 심장이 저러다지는것만 같았던 최인화동무는 거듭되는 사색끝에 강선지방에 흔한 도자기원료로 고열토와 규사를 대신할것을 결심하였다.

뜨겁고 순결한 붉은 쇠물

지난해 4월 어느날 대동방간을 따라 신나게 뻘어나간 도로로 천리마지역을 떠나 온원군으로 가는 버려배스가 달리고 있었다.
 배산안에 총총히 앉았이는 사람들속에는 동지들과 가족들의 권고에 못이겨 로양으로 가는 최인화동무도 있었다.
 기업소의 일꾼들에게 한미다 비쳐머러던 승용차를 타고 편안히 갔으면하던 최인화동무는 소문없이 조용히 강선을 떠났던것이다.
 색날은 퍼퓸용가방을 가슴에 안은채 열에 서있는 사람에게 불린대로 함께 갔다며 자기 자리를 조여주는 백발의 로인이 다가오더니 우리 나라의 첫 천리마기수이며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김일성장제과인이라는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최인화동무의 한생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한생에 그토록 많은 쇠물을 부어내고 그토록 많은 공로를 세운 그였지만 자기마한 특권과 특혜도 배려가 없이 간신히 목욕히 바쳐온 참되고 아름다운 인간이 바로 최인화동무였다.
 지금도 최인화동무의 안에 최귀회녀성은 그와 결혼하여 첫 살림을 쳐던 때를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한다.
 그때 최인화동무가 2중천리마기수의 영예를 받아안은 1960년대초였다.
 가슴에 천리마위장을 단 천리마기수러던 배산안에서도 서로마다 자리를 권하고 식당이나 리발소에서든 우선적으로 봉사해주며 영웅처럼 존대해주던 그 시절에 2중천리마기수의 결혼하게 된 최귀회녀성의 공지는 대단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도 당장은 집이 없으니 당분간 기다리라 하고는 제 혼자 합숙으로 다시 들어간 최인화동무는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집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보아내었다. 이제는 보급자리가 생겼다는 기쁨을 안고 찾아가보니 그것은 제강소구내의 어느 한 건물에 걸린말 창고로 살림방으로 개조한것이었다.
 1년내내 습기가 배어나오는 담벽은 땀기를 쫓고도 누기가 찬 집이면 불이 잘 들지 않아 늘쌍 내굴이 차있었다.
 겨울이 시작되기 바쁘게 태어난지 몇달 밖에 안된 아들까지 손에 통상을 입었다.
 한정집에 가서 구해온 꿀은 아들의 손에 발라 선민복에 띄어주던 최귀회녀성은 며칠만에 집에 들어서는 남편에게 사정했다.

《당신이야 2중천리마기수가 아니에요. 이제라도 당위원회에 찾아가 집문제를 달해보세요, 아무머러...》
 《어보!》
 버럭 울음을 내리던 최인화동무는 통상임은 아들의 손을 꼭 쥐더니 마음을 누착하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다.
 지금 제 강소가 후회로의 강제라도 더 내주고 배고픔도 추위로도 모두 참으면서 일하고있다. 살림집이 부족해서 진용원영웅도 자기 집을 통저를 들었는데 내가 나라를 위하여 힘써서 할 일이었다고 내가 내민단 말인가. 우리 조급만 더 건디자. 나라의 강철기둥부터 든든히 세우면 집은 저절로 생겼을것이다.
 가정보다 먼저 제강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절박한 마음이 어린 남편의 말은 현실로 되였다. 나라에서는 그들부부에게 아담한 살림집을 배정해주었으며 제강소당위원회에서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었다. 그 모든것이 제강소에 찾아오실 때마다 쇠물보다 먼저 사람을 보아야 한다면서 용해공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라고 하신던 아버지수령님의 간곡한 당부에 따른것이 라는것을 알았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린 그들이 부부였다.
 받아안은 사람이 커갈수록 나라의 맡아 들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한생토록 지켜야 할 그 본분에 변함없이 충실했던 최인화동무였기에 아들딸 세 남자의 결혼식에 모두 지각하는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다.
 딸아들인 최정동기동무의 결혼식날이었다.
 너무나도 일이 바빠 땀을 내지 못한 최인화동무가 뒤늦게 짐으로 달려와보니 기다리던 아들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큰 상을 들고나 뒤였다. 상을 다시 치르고보니 큰상에 올려놓았던 회귀한 과일이며 과파류들은 이윽고에 나누어준 뒤에서 어서빨리 기지켰었다. 할수없이 몇가지 음식들을 올려놓은 큰상안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지만 그나마도 최인화동무는 직접부처들이었다.
 딸이 시집갈 때, 막내아들이 장가갔을 때도 최인화동무는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뒤늦게 나타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고서는 제 몸의 귀중함을 염두에두고 온갖 포대시 기업소로 달려나갔다.
 지금도 사진첩에 붙어있는 석양의 결혼 사진을 볼 때마다 최인화동무의 세 남배는

다시금 살피고 죽이는 강의 지켜보는 최인화동무의 눈가에 최목빛이 이글거렸다. 강에서 뛰어오르는 눈부신 백광이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속에 비쳐들었던것이다.
 성공의 희열이 안아온 눈물이었다.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을 미소속에 바라보던 최인화동무는 조용히 업무직장을 내갔다.
 얼마후 집으로 돌아온 최인화동무는 자리에 쓰러졌다. 지금껏 생명을 견지하고있던 마지막방울까지 다 써버린것이었다.
 흔히 말하는 의식속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름없는 영상이 안겨준 나라의 첫 천리마기수로 키워주시고 김일성장제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왔다.
 영원히 안겨살고있을 아버지의 품을 자기의 기억속에 뚜렷이 새겨안고 가려는 전기로와 함께 바쳐온 인생의 모든 영상이 움켜져있을 기념사진들을 하임없이 우려트던 최인화동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들인 최정동기동무가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굳게 쥐여져있었다.
 한생토록 온갖과 실험을 바쳐온 강철 덩어리마냥 역세게 틀어잡은 최인화동무의 주먹우에 쇠물처럼 뜨거운 아들의 눈물이 잠잠이 떨어지내었다.
 의식을 잃기 전에 최인화동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아버지께 대한 격정으로 눈물흘리는 자식들에게 아버지수령님의 첫 현지지도 기념일을 상기시켜주던 그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귀를 찢는 심장을 위해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에 있고 살아온 오랜 로동계급의 백옥같은 향수와 천리마시대가 불러준 충성과 의리의 진로를 감성함의 후손들이 70년, 70년 아니 영원토록 이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당부를 받아안을수 있는것이다.
 천수백℃의 고열속에서 쇠물은 더욱 순결해지고 눈부신 빛을 뿌린다.
 최인화동무의 심장속에 간직된 첫 천리마기수의 향수는 이렇듯 쇠물과 같은것이다.
 우리 당을 따르는 길에 시련이 겹쌓이고 고난이 막아설수록 더욱더 당의 손길을 꼭 부여잡고 걸어가는 향수, 인생의 길에 걸터서 우리는 귀를 찢는 심장을 위해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에 있고 살아온 오랜 로동계급의 백옥같은 향수와 천리마시대가 불러준 충성과 의리의 진로를 감성함의 후손들이 70년, 70년 아니 영원토록 이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당부를 받아안을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마시대로부터 선군시대에 이르는 오랜 세월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순결한 향심을 안고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겸 앞장서서 받들어온 최인화동무의 고결한 삶을 온 세상이 안도록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수령이 언저준 로동계급의 영예를 목숨처럼 간직하고 한생을 다 바쳐 지켜가는 사람들이아말로 선군시대 조선로동계급의 제일기수, 전위투사가 될수 있다는것을 최인화동무는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영예!
 바로 이것을 목숨바쳐 지키는 길에서 천리마의 눈부신 기적도, 수조만부유의 역사적인 대업도 모두 이룩할수 있었다는것을 우리 로동계급은 당을 따라 걸어온 혁명의 천리마고성 진리로 세득하였다.
 그 진리를 안고 한사람의 기수가 쓰러지던 열, 백, 한사람이 그 기발을 이어받으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돌격해나가는 최인화동무의 앞장에 우리 나라의 첫 천리마기수 최인화동무는 영원히 서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승철진

행복의 열쇠는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선 신념의 강자들에게 있다

드림애자 하나가 천수백개로 늘어난 사연

동평양전철대의 일꾼들과 중공업인들이 천차선로의 주요구성요소의 하나인 드림애자를 적극 재생리용하여 철도수송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 있다.

우리와 만난 전철대 사령장 리철호동무는 일명 현수애자라고도 불리우는 암강선의 드림애자는 눈에 퀴이 뜨이지는 않지만 천차선로수리공들이 드나드는 이 고압애자가 애국의 마음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되었다고 하면서 그 사연을 들려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사회적으로 철야투쟁을 강화하여 한W의 전기, 한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성과 주인의식을 띠고 애국심과 주인의식을 높이고 애국의 기쁨을 세워야 합니다.》

몇해전 봄 어느날 대동강전차선로소대원들은 담당전차선로

에서 불탄 몇개의 드림애자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다.

그날 불탄애자들에 앉은 먼지를 말끔히 닦고나서 소대장 리철호동무는 지렛대 갈라드는 생각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이 전부터 흉고있던 것이었다.

전기식각으로 하나같이 가늘어진 애자못, 그것들을 원반 모양의 암강선연체에서 뽑아내어 용접으로 튼튼히 보강한 다음 총중재로 고정시키면 얼마든지 다시 리용할수 있을것 같았다.

이런 생각으로 그가 드림애자에 아직 박혀있는 암강선애자못을 뽑아내지 말고 또 보는데 소대원들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차선로에서 전기식각이 어려울수 없는 일이고 또 불탄 애자못들을 제때에 발견하여 교체하는 것이 전차선로소대의 사명이 아닌가 하고 하며 새로 교체한 광안

대동강전차선로소대 소대원들 받아오라고 했다.

물론 전차선로수리보수에 필요한 광안용 드림애자들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 또 불탄 애자못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교체하는 것이 전차선로소대의 임무인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머리를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재생리용할수 있을것 같은데 우리 한민 불탄 애자못들을 새것처럼 만들어보는데 무엇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드림애자가 아닌가.

불소제형드림애자의 구조를 그려보면서 나라에 적으나마 보편을 주려는 자기의 생각을 리철호동무의 이야기하는 대변인 소대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남철, 김성철, 전일광동무를 비롯한 소대원들은 두달간고

달라붙어 처음에는 불탄 애자 한개를 재생하여 전차선로에 설치했다. 그다음에는 두개, 세개, 다섯개...

세개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누구의 요구도 지지도 없었지만 리철호동무와 소대원들은 월, 분기별로 목표를 높이 세우고 불탄드림애자들을 재생리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달리는 열차들을 보면서 레우나 침묵, 로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도 두줄기케도우의 공중에 날아온 전차선이며 그것을 유지하고있는 메달이 줄과 드림용, 암강선드림애자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보수관리하는 전차선로수리공들의 노력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리철호동무와 소대원들은 누가 보지않고, 알아주진 않건 스스로 드림애자를 재생리

용하는것을 망심의 의무로 받아안았었다.

이들의 애국적소행은 곧 중대와 전철대에 전해졌다. 얼마 있지 않아 동평양전철대인의 모든 소대, 중대들에서 대동강전차선로소대에처럼 불탄 애자못들을 재생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지난 4~5년동안에만도 리철호동무와 소대원들은 근 400개의 드림애자들을 재생리용하여 화력발전소석탄수송을 비롯하여 중요물동수송을 무사고로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기간 전철대적으로 재생리용한 드림애자는 무려 천수백개나 된다.

한겨레부터 천수백개로 늘어난 드림애자, 거기에는 평범한 전차선로수리공들인 리철호동무와 그의 소대원들의 순결한 망심과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이 소중히 깃들여있었다.

본사기자 김지근

공지높이 새긴 이름

얼마전 우리가 연탄 화학용품공장을 찾았을 때였다. 정문을 지나 구내에 들어서니 큼직한 유리막안에 걸려있던 애국의 눈길을 끌었다. 그중에서도 《연탄호》라는 글씨가 새겨진 빨래비누가 한눈에 띄어왔다. 우리와 그 비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데 동행한 군의 일꾼이 공장 들 무슨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자니 원로자랑, 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하며 만족해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날 지배인은 로동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전 오늘 (나의 사상을 알려주는 나의 일터와 나의 기대, 나의 제품을 보라!) 이 구호를 새겨서 새겨보라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후 지배인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의 얼굴에 사색이 끼고 손에 자랑스레 들고다니던 수월이 기술하고서 바깥에 로동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로동자들의 일보새와 기쁨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매주 기술습습이 습습습이 진행되어 리터다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열린 목소리가 때때로 울려나왔다. 지배인이 앞에서 지퍼울린 기술혁신의 불길속에서 피마주제검정기는 기계가 창안제까지 거꾸로되던 비누의 색깔이 훨씬 좋아졌고 전국적인 과학기술전시회에 출품되었던 피마주제검정기가 생산에서 은을 내게 되어 저물 또한 잘 일게 되었다.

본사기자 현경철

연탄 화학 일용품 공장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누에 대한 주민들의 반향이 날마다 좋았다.

어느날 청년비누작업반에 들어서면 지배인과 기술준비원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오랜 기능공인 김화광 주영숙동무가 《비누 1을 만드는데 드는 피마주제검정기...》 하고 되이더니 자그마한 수첩에 무엇인가 부지런히 적고있었다. 지배인이 영문을 몰자 그는 김화광에서 표준조작법을 잘 지켜 피마주제검정기 가성소다의 배합비율을 잘 조절해도 비누의 질이 더 좋아질것 같다고 담담히 말하는것이였다. 비록 박혔으나 자기 직업에 대한 확신이 비친 말에서 그들은 달음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만큼 아니었다. 일터의 로동자들도 그가 그려준 살며시 일하였다. 이렇게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다.

새싹과도 거울이 잘 보이는 비누가 로동자들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었을 때 지배인은 로동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우리 몇몇이 이 비누에 뜻깊은 《연탄호》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후 공장에서 생산된 빨래비누는 2월2일제품으로 등록되었다. 그렇게 생산된 비누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민들은 이 공장을 두고 일리는 작아도 큰일을 하는 공장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와 헤어질 때 지배인은 공장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빨래비누뿐만 아니라 각종 피마주제검정기와 장제의 질을 더욱 높이며 특히 동맹나무염색을 원료로 하는 머기기를 올해 제품으로 내놓을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고 확신있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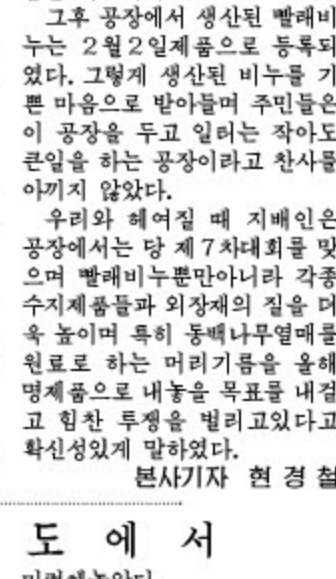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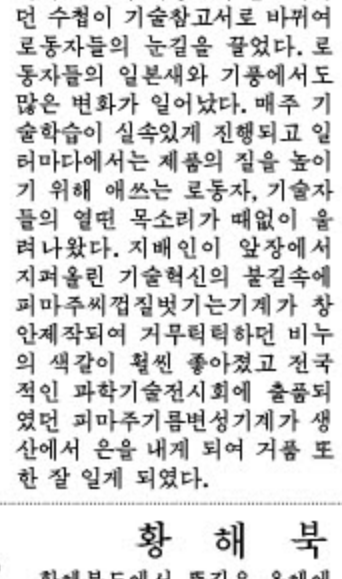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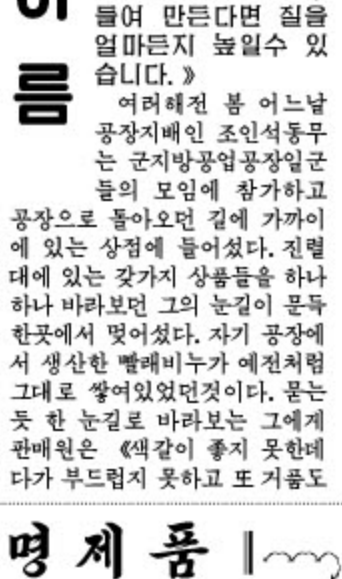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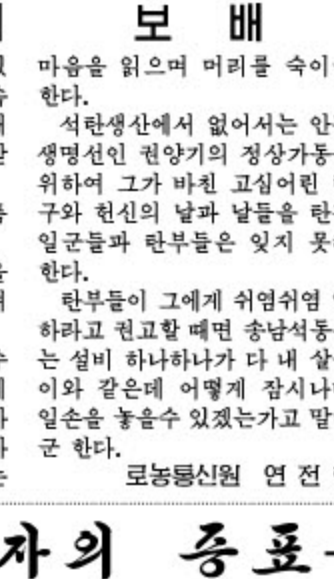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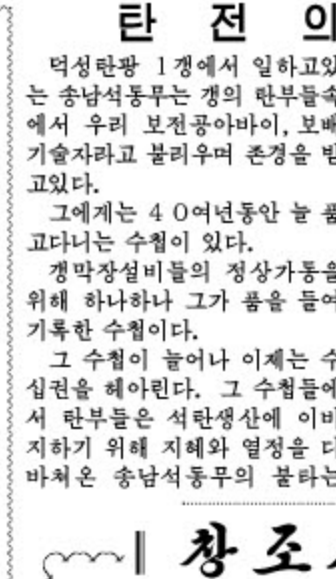
본사기자 현경철

《이제는 우리 몇몇이 이 비누에 뜻깊은 《연탄호》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후 공장에서 생산된 빨래비누는 2월2일제품으로 등록되었다. 그렇게 생산된 비누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민들은 이 공장을 두고 일리는 작아도 큰일을 하는 공장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와 헤어질 때 지배인은 공장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빨래비누뿐만 아니라 각종 피마주제검정기와 장제의 질을 더욱 높이며 특히 동맹나무염색을 원료로 하는 머기기를 올해 제품으로 내놓을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고 확신있게 말하였다.

본사기자 현경철



작장의 숨결

2.8 직동청년단 김유봉청년들격대에서

여기는 2.8 직동청년단 김유봉청년들격대 12명 130명도 기본결집막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펼쳐나선 김유봉청년들격대원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다.

《인민혁명 오늘결집계획도 180%는 문제없습소.》

들격대 대장 남철동무의 말을 증명하듯 결집3소대 소대장 최영수동무와 결집공들이 두 순환을 위해 또다시 막장으로 전진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오늘날 총진군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기관총의 연발사격과 같이 막장에 울려 퍼지는 착암기소리, 힘없이 비력을 실는 적제기, 압축기의 고르른 동음...

새 채탄장을 개척해나가는 이들의 얼굴마다 기본결집의 일장에 깃든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다.

《저 동무들은 도의 탄광부

청년들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당 제7차대회전으로 년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고 편지를 올린 그날부터 하루에 두분, 세분씩 해체되고 있습니다.

들격대장이 천연암반을 뚫어 나가는 정전일, 송남철, 리영국 동무들 비롯한 결집공들을 두고 자랑하는 목소리이다.

그들의 장한 모습을 바라보느라 영웅청년선화를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자들의 청년들격대원이 여기 수천척의 학막에서도 굶어치고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찢어오른다.

결집공들이 깊숙이 들어박힌 정체를 뚫아 다른 곳에 가져다낸다.

《구멍당 착암시간을 또 단축했소.》

당세로서는 탄광청년들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하는 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막장의 숨결은 더더욱 높아진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구멍당 착암시간을 또 단축했소.》

당세로서는 탄광청년들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하는 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막장의 숨결은 더더욱 높아진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기운차게 울려 퍼지는 착암기소리가 똑똑했다.

《발라다비!》

소대장의 구령에 따라 탄부들은 말은 일을 숨지 않게 해체된다. 다 하고있고도 발라다비들이 속면된 속미로 친공마다에 똑똑하게 다져넣는다.

잠시후 막장을 들었다는 요란한 폭음이 울린다. 발라다비만이 만고고도 버럭이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정확히 가늠하는 남철동무가 확신에 넘쳐 말한다.

《이날계획은 1.8배는 문제 없소.》

지난 20일까지 1월계획을 끝냈다는 기쁨의 미소가 결집공들의 얼굴마다에 한껏 피어오른다. 언젠가 끝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파라 폭풍처럼 내달리는 조선청년들의 자발스러움 모습은 여기 수천척의 학막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구멍당 착암시간을 또 단축했소.》

당세로서는 탄광청년들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하는 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막장의 숨결은 더더욱 높아진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탄전의 보배

덕성탄광 1갱에서 일하고있는 송남철동무는 갱의 탄부들속에서 우리 불탄애자못을 발견하고 기쁘게 불려오며 존경을 받고있다.

그에게는 40여년동안 늘 품고다니는 수첩이 있다.

갱장장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위해 하나하나 그가 품을 들어 기록한 수첩이다.

수첩이 늘어나 이제는 수십권을 헤아린다. 그 수첩들에서 탄부들은 석탄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송남철동무의 불타는 마음을 읽으며 머리를 숙이곤 한다.

석탄생산에서 없어서는 안될 생명선인 전야기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그가 바친 고집이 어린 탐구와 헌신의 날과 날들을 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은 잊지 못해 한다.

탄부들이 그에게 귀머거리일 하라고 권하고 때때 송남철동무는 설비 하나하나가 다 내 살같이와 같은데 어떻게 잠시나마 일손을 놓을수 있겠는가고 말하곤 한다.

로동동신원 연정행

창조자의 증표-명제품

적수준이 더욱 높아진 이 늦겨울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높다.

미처 생산을 따라내지 못할 정도로도 한다.

세공품같은 늦겨울, 바로 여기에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고 조국과 인민앞에 자기의 얼굴이 뚜렷한 인기제품을 내놓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온 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열이 뜨겁게 깃들여 있는것이였다.

본사기자

하지만 명제품을 생산해내는 공정의 주인이라는 또 높은 책임감과 분반성이 그만 아닌 공정의 일꾼들과 종업원도부인민의 호평을 받을수 자신을 부단히 채적질하며 우리의 명제품, 명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지게 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게 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창조자들의 참된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기에.

장정철

향해 북도에서

향해북도에서 뜻깊은 올해에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이기 위한 준비사업이 활기있게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산림청부원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도안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목표로 나무모비배판리, 소적회와 보조재생산 등 나무심기준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푸른 숲은 나무모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명칭한 서흥산림경영소의 종업원들은 나무모를 바로 선택하고 앞선 나무모주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난해말까지 이따나루, 갓나루, 세일소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를 튼튼하게 키워왔다.

연탄군, 수안산림경영소에서는 과학기술습습을 정상화하여 양묘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이고 나무모기원기를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원비담을 일으켜 많은 나무모들을

마련해놓았다.

마련해놓았다.

이미 나무모생산에서 성과를 거둔 연탄군, 신계군에서는 겨울철준비로 나무모들이 얼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떠놓은 나무모들이 한 리에 힘을 넣고있다.

신성군, 복산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체로 많은 양의 소적회를 생산하였다.

은과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도 해가 밝을 때, 가뭄, 중건대 등 나무심기에 필요한 보조재들과 자금비로도 넉넉히 장만하였다.

가까운 몇해안에 군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데다 민족의 마음으로 금강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굳은결심으로 나무심기에 리용할 거름생산과제를 120%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민산, 창주, 상원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거침없는 힘을 적극 쏟아내고 집단의 결집열정을 일으며 자급비로 생산과 실어내기계획을 전부 끝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쿠바공화국 정부사이의 의정서를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쿠바공화국 정부사이의 2016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 발전을 위한 회의 의정서와

우리 나라가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하였다.

우리 나라가 공화국정부 결정에 따라 25일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하였다.

쓰발바르조약은 쓰발바르제도에서 조약가입국들에 경제활동과 과학연구활동의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다방조약으로서 1920년 2월 9일 파리에서 체결되었다.

쓰발바르제도에는 노르웨이의 최북단과 그린랜드 동북부에 위치하고있다.

여기에는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그 주변수역은 북빙양에서 주요어장으로 되고 있다.

2016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28일 쿠바의 아바나에서 조인되었다.

박창을 쿠바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로드리고 달미에르카 디아스 쿠바 무역 및 외국투자상이 의정서에 각각 수표하였다.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들의 북극탐험기지로 리용되어오고있다.

우리 나라가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쓰발바르제도에서 경제 및 과학연구활동을 할수 있는 국제법적당도 가지게 되었다.

특명전권대사와 로드리고 달미에르카 디아스 쿠바 무역 및 외국투자상이 의정서에 각각 수표하였다.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들의 북극탐험기지로 리용되어오고있다.

우리 나라가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쓰발바르제도에서 경제 및 과학연구활동을 할수 있는 국제법적당도 가지게 되었다.

제24차 마씨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 귀국

제24차 마씨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교예배우들이 29일 평양으로 귀국하였다.

프랑스의 마씨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국제교예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도이힐란 드, 로씨야, 스위스,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의 우수한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체코교예 《3단회비행》에 출연한 우리 나라의 교예배우들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기교

동작들을 대담하면서도 세치있게 펼쳐보여 심사위원들과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나라 체코교예 《3단회비행》에 출연한 우리 나라의 교예배우들이 29일 평양으로 귀국하였다.

체코교예 《3단회비행》에 출연한 우리 나라의 교예배우들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기교

동작들을 대담하면서도 세치있게 펼쳐보여 심사위원들과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나라 체코교예 《3단회비행》에 출연한 우리 나라의 교예배우들이 29일 평양으로 귀국하였다.

체코교예 《3단회비행》에 출연한 우리 나라의 교예배우들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기교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얻는 실리

사리원시 은덕원에서는 현재 하루에 요구되는 1500m의 물을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원탄히 보장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하루에 많은 물을 소비해야 필요한 물을 보장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태양빛을 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교차식으로 건물이나 리빙기를 리용하는것은 물론 조명장광과 불장석에도 충분히 리용하고있다. 기계실에

이 과정에 은덕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태양빛전지판들과 축전지들을 마련하였고 국가과학원 해당 부문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면제에 따라 리용할수 있는 기술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효과 있게 리용할수 있게 배전반도 훌륭히 꾸려놓았다.

자세설정에 맞게 수증기를 리용하는 물공급체계도 세워놓았다.

자연에너지를 리용한 전력공급체계를 세우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은덕원에서는 현재 하루에 요구되는 1500m의 물을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원탄히 보장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하루에 많은 물을 소비해야 필요한 물을 보장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태양빛을 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교차식으로 건물이나 리빙기를 리용하는것은 물론 조명장광과 불장석에도 충분히 리용하고있다. 기계실에

이 과정에 은덕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태양빛전지판들과 축전지들을 마련하였고 국가과학원 해당 부문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면제에 따라 리용할수 있는 기술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효과 있게 리용할수 있게 배전반도 훌륭히 꾸려놓았다.

자세설정에 맞게 수증기를 리용하는 물공급체계도 세워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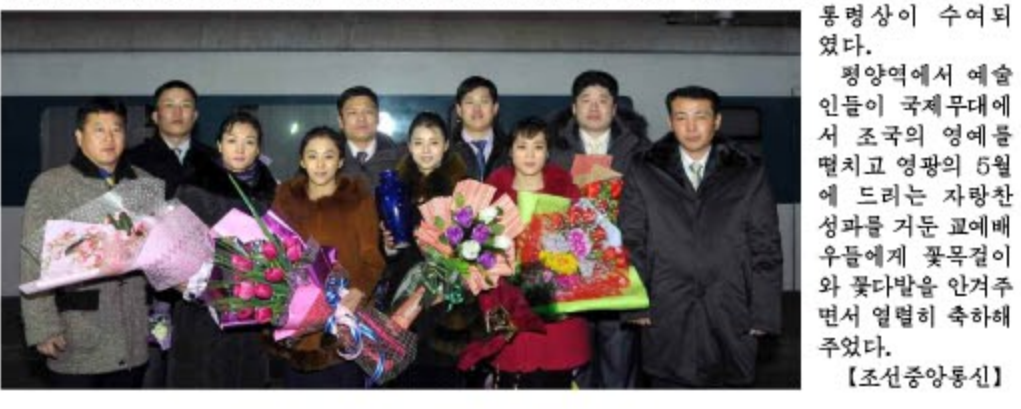
자연에너지를 리용한 전력공급체계를 세우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은덕원에서는 현재 하루에 요구되는 1500m의 물을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원탄히 보장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하루에 많은 물을 소비해야 필요한 물을 보장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태양빛을 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교차식으로 건물이나 리빙기를 리용하는것은 물론 조명장광과 불장석에도 충분히 리용하고있다. 기계실에



지체없이 들어내야 할 핵전쟁위험의 근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제거되고 공고한 평화와 긴장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북쪽의 지형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핵평정전도발핵등에 광분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핵무기반입을 공식발표한 때로부터 58년이 된 지금 우리 겨레는 남조선에 세계최대의 핵화약으로, 위험천만한 북핵전쟁발발지로서 전례없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핵무기반입정책은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지배전략과 대조선적대시책의 산물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남조선에 핵전조까지 만들고 핵으로 우리 공화국과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쳐 날뛰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벌써 남조선에 《사찰직업 작전지침》으로 삼은 미국은 남조선전쟁 미제침략군의 핵무장장본격적으로 다그쳤다.

조선경호부지령의 모든 무장장비반입을 일체 금지하라는 대대적인 전선지침 제13항 기록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국은 1957년 7월 남조선전쟁 미군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 것을 선포하여 1958년 1월 29일 《유엔군사령부》의 이름으로 《오네스트론》 핵미사일과 280mm원자로, 《B-61》 핵폭탄 등을 남조선에 반입하였다는 것을 공식발표하였다.

이때부터 미국은 우리 민족과 세계 평화에 초인된들의 강경한 항의의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전쟁 미제침략군을 북핵전쟁대적무력으로 전전시키고 남조선에 국공립대의 핵전쟁화약교민들었다. 남조선으로는 핵미사일과 핵

폭탄, 핵로탄은 물론 핵지뢰, 핵배낭 등 미국의 각종 핵무기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미국우익이 발간한 어느 한 도서에 의하더라도 미국은 1958년 초에 《오네스트론》 핵미사일부대와 《벤토믹》 핵자사단을 남조선에 배치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남조선전쟁 미공군에 핵탄두를 탑재한 《마타호》 미사일을 배치하고 대대적인 핵전진습습을 감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8m(인치)폭사포 유희로탄, 《서전트》를 비롯한 각종 핵탄두, 《맨스피어》 등 핵탄두사단을 남조선에 배치하여 1980년대에도 《웨》의 유세》를 떠돌며 《서전트 2》 중거리 핵미사일을 우리 공화국에 배치하였고 일본 오기사와에 있던 전술핵무기까지 남조선에 들여다 전개하였다. 이로써 남조선은 미국핵무기의 거대한 전진장소로 전변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미국이 《20세기 악마의 무기》로 알려진 중성자탄을 남조선에 배치한 것은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면서 조선민족의 머리에 핵재난을 들이우려는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무법무리하게 감행되었는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 세계 핵전쟁의 위험을 감행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중대한 사명감을 지닌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기어고 알살할 흉계에도 모든 정당한 제안들을 외면하고 남조선피괴물과

야합하여 북핵전쟁도발책동을 날로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이 《핵대세검토보고서》라는 것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핵전세력대적상으로서 지정하고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각종 핵력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북핵합동군사연습소등에 열을 올려 조선반도에 합시적인 핵전쟁위험을 조성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뿐이 아니다. 《전략적유연성》의 간판 밑에 남조선전쟁 미제침략군을 해, 공군력을 기본으로 하는 핵전쟁무력으로 개편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력을 증대할 준비를 갖추어놓은 사실, 유사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할 기도들에 남조선당국에 《핵확장능력》을 제정한다는 것을 공약한 사실 등은 우리에게 대한 핵공격에 미쳐 날뛰면서 북핵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미국의 호전적폭발을 남일이 폭로해주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 핵무기반입소통과 끊임없는 핵전쟁위험을 호하여 나라의 평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도 무어부림을 겪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세계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우리 겨레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위협을 악랄하게 가모락은 친수에 용납 못할 죄악으로서 역사에 맹목히 기록되어 있다.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소통에 대처한 정당한 자위적책이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무기교를 가지고 반세계자주적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악

의 소굴이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도 핵위험을 앞세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해 발생되었다.

미국이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화약고로 만들고 그에 토대하여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피괴물과 북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한것으로 하여 우리는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갖추게 되었다.

무법무리한 핵공갈과 남공화국합작책동으로 우리를 핵보유로 떠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에 대해 이리공저리공 시비질할 꾀만 한 한자적도 명분도 없다.

더우기 최근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압력을 강화할 기도에 남조선과 그 주변일대에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타격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피괴호전범들도 미국의 핵전쟁소통에 적극 추종하면서 도처에서 각종 전쟁연습들을 광범위적으로 벌이고 있다. 내외외교장들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의 남조선배비를 다그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날로 증대시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린하고 있다.

조선된 사태는 우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법무리한 핵위협소통에 대처하여 자위적억제력을 마련하고 그것을 백방으로 강화해온것이 원만한 정답하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해주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산생시키고 평화를 유린하면서 핵전쟁의 위험을 고조시켜온 주범은 다름이 없다. 미국이다.

미국은 가장 야만적이며 극악한 핵범죄자로서의 자기의 더러운 정체를 그 무엇으로도 감추지 않는다.

리 성 호

시정배들의 가소로운 몸부림

피괴국회에 틀고앉아있는 정치간상배들이 서로 야합하여 발생했던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끝내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적페당은 10년 전 남도록 《국회》당내에서 민지만 쌓이던 골통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고 패배를 울리고 있다.

골통은 온통 동족대결의 휘가 쏠려 배감부쓰고 잔치집 드나드는 것과 같은 교묘한 일삼아 온자들의 광대극인지라 역경기 그치지 않지만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미련하고 가변한 수태이다. 우리 공화국의 무장친척간 정치군사적위협과 전도양양한 미래에 질질한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이기에 때론다. 정치간상배들이 서로 신경을 도사리고 매일같이 악을 돌리며 《합법정법》을 일삼는 속에서도 《북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보면 천둥이 떠는 잠룡이 얼마나 남달라 급해앉아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남조선보수페당이 그 누구의 《인권중진향상》이니, 《핵사적폐제》니 하며 《북인권법》채택을 염색 가장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원해 남조선 《국회》라는 것은 미국의 침략지배정체와 낱은 기형아로서 인민대중의 현실을 짚어 제리남한 제우며 일선의 정치적야욕과 치우며 피는 이 천 시정배들이 특질적인 《생리내의 교양이 국회》, 사회와 정치를 통째로 오염시키는 부패의 소굴,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동족대결의 아성이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떨쳐나서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각계중 인민들의 피하는 절규는 귀를 틀어막고 동족을 해칠 꿈꾸어만 하는 미쳐 《국회》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번에 제헌도 향심도 주권도 없이 《북인권법》의 《국회》처리에 공모해나선자들은 그 누구인지 바랄바라 뜻을 달여 정치적정체를 부지해가는 인간중독물 락인되어 두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따마로 알라. 여적무리들이 제우며 무리 소란스럽게 짓어대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시정배들은 끄떡없으며 날같이 그 위력을 높이 떨칠 것이다. 그들은 한결보다 흐르고 있는 지은대로 간다.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민족을 망신시키는 것만 골라하는 자들에게는 마른눈에 날벼락 맞는 비참한 운명밖에 차게질것이다.

허 영 민

한 책들의 연장이며 최정정이다.

하지만 식민주주들이 아무리 험구질해도 천만 군민이 입심으로 받들어 지켜가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를 절대로 어쩔 수 없다. 정치협정합동들의 《북인권법》채택을 염색은 가물에 도랑 치는 격의 헛수고일뿐이다.

여적페당은 반공화국핵소통의 총파산으로 절망에 빠진 미국상전이 단말미적발악으로 범퍼놓는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허무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골통에서 빼놓은 족제비같은 제 골통이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보수페당의 역거를 사대대국 행위와 반인민적통동악정이 분노의 격력을 몰아와 반역《정권》이 밀부리해 뒤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다 제그저가는 자기 일들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동족을 더무니없이 모욕하는 악법조작에 정성이 빠져있으니 피괴국회야말로 색은 정치의 집합체가 아닐수 없다.

이번의 수치스러운 공모행위로 남조선《국회》는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원해 남조선 《국회》라는 것은 미국의 침략지배정체와 낱은 기형아로서 인민대중의 현실을 짚어 제리남한 제우며 일선의 정치적야욕과 치우며 피는 이 천 시정배들이 특질적인 《생리내의 교양이 국회》, 사회와 정치를 통째로 오염시키는 부패의 소굴,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동족대결의 아성이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떨쳐나서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각계중 인민들의 피하는 절규는 귀를 틀어막고 동족을 해칠 꿈꾸어만 하는 미쳐 《국회》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번에 제헌도 향심도 주권도 없이 《북인권법》의 《국회》처리에 공모해나선자들은 그 누구인지 바랄바라 뜻을 달여 정치적정체를 부지해가는 인간중독물 락인되어 두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따마로 알라. 여적무리들이 제우며 무리 소란스럽게 짓어대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시정배들은 끄떡없으며 날같이 그 위력을 높이 떨칠 것이다. 그들은 한결보다 흐르고 있는 지은대로 간다.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민족을 망신시키는 것만 골라하는 자들에게는 마른눈에 날벼락 맞는 비참한 운명밖에 차게질것이다.

허 영 민

가 살뿐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지침은 기존에 있던 실정에 따른 해고조항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가치를 업추추는 하는 조건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풀라내기 위한 무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주장하였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노동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같은 지침이 나와 있다.

같은 《정부》가 직장을 내리듯이 지침을 내리 해고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문제를 결정

가 살뿐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지침은 기존에 있던 실정에 따른 해고조항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가치를 업추추는 하는 조건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풀라내기 위한 무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주장하였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노동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같은 지침이 나와 있다.

같은 《정부》가 직장을 내리듯이 지침을 내리 해고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문제를 결정

가 살뿐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지침은 기존에 있던 실정에 따른 해고조항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가치를 업추추는 하는 조건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풀라내기 위한 무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주장하였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노동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같은 지침이 나와 있다.

같은 《정부》가 직장을 내리듯이 지침을 내리 해고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문제를 결정

가 살뿐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지침은 기존에 있던 실정에 따른 해고조항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가치를 업추추는 하는 조건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풀라내기 위한 무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주장하였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노동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같은 지침이 나와 있다.

같은 《정부》가 직장을 내리듯이 지침을 내리 해고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문제를 결정

가 살뿐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지침은 기존에 있던 실정에 따른 해고조항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가치를 업추추는 하는 조건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풀라내기 위한 무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주장하였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노동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같은 지침이 나와 있다.

같은 《정부》가 직장을 내리듯이 지침을 내리 해고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문제를 결정

가 살뿐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지침은 기존에 있던 실정에 따른 해고조항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가치를 업추추는 하는 조건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풀라내기 위한 무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주장하였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노동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같은 지침이 나와 있다.

같은 《정부》가 직장을 내리듯이 지침을 내리 해고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문제를 결정

가 살뿐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지침은 기존에 있던 실정에 따른 해고조항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가치를 업추추는 하는 조건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풀라내기 위한 무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주장하였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노동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같은 지침이 나와 있다.

같은 《정부》가 직장을 내리듯이 지침을 내리 해고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문제를 결정

김 국 철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짓밟는 매국배족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민심을 등진 반역무리의 가련한 신세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대우적인 형사후보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며 로총에게 더욱 피눈이 되어 돌아지자 단호한 항거의 표시로 《로총대타합》의 전변과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가 살뿐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지침은 기존에 있던 실정에 따른 해고조항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가치를 업추추는 하는 조건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풀라내기 위한 무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주장하였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노동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같은 지침이 나와 있다.

같은 《정부》가 직장을 내리듯이 지침을 내리 해고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문제를 결정

가 살뿐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지침은 기존에 있던 실정에 따른 해고조항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가치를 업추추는 하는 조건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풀라내기 위한 무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주장하였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노동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같은 지침이 나와 있다.

같은 《정부》가 직장을 내리듯이 지침을 내리 해고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문제를 결정

가 살뿐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런 지침은 기존에 있던 실정에 따른 해고조항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가치를 업추추는 하는 조건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풀라내기 위한 무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주장하였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노동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같은 지침이 나와 있다.

같은 《정부》가 직장을 내리듯이 지침을 내리 해고지침과 취업규칙이라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문제를 결정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항의 해제를 위한 전국행동》 결성식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해내었다.

《합의》는 남로 높여가는 반성부가 운동을 무마하고 민심을 회유할 심산에 따라 내놓은 남조선전진지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응과 반역적당국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였다. 로총은 전진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소리에 경악기적으로 대하

이해 정부로부터 남조선전진지가 격렬한 반성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남조선전진지가 주목거리이며 내부에서는 초보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노소들을 가림없이 각계중 인민들이 용병처럼 성노소사상주의를 예외하고 골우현상형투쟁으로 나와 발을 이어가고 있다. 《소녀상을 지어라!》는 의문의 웨침이 거러와 풍목을 풍하는 속에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반동들과 친일배교도들의 추대에 견조하여 소녀상을 남조선의 전지적로 세계곳곳에 세울것이라고 선언해내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우리 겨레 하나하나가 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로총, 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주요조